

화학, 3/4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

에프앤가이드, 원료코스트 하락에 수요 증가 ... IT가 회복세 주도

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의 3/4분기 실적이 정보기술(IT)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회복과 원자재값 하락 등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3/4분기 국내기업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.

9월10일 금융정보 제공기업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, 국내 증권사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실적추정치를 내놓은 187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5조6057억원, 13조793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.93%, 23.88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.

2005년 3/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6.99%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1.67% 감소하는 수치이다.

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006년 2/4분기를 저점을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200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.

산업별로는 전기전자가 반도체와 LCD 등 주요 IT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영업이익이 48.69%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.

국내 21개 증권사의 삼성전자 3/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평균 1조8078억원으로 27.49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.

이는 2005년 3/4분기 2조1251억원에 비해서는 14.93% 줄어든 것이다.

하이닉스는 2006년 3/4분기 영업이익이 4205억원으로 41.79% 늘어나고, LG필립스LCD는 영업손실이 2441억원으로 44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/4분기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화학·철강 등 소재주도 원자재가격 하락과 계절적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.

화학 대표주인 SK의 2/4분기 영업이익이 3358억원으로 9.38% 증가하며 철강 대표주인 POSCO도 영업이익이 1조384억원으로 10.30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재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11>